

2019년 10월 11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협상 기대 높아지며 상승 트럼프 “중국 부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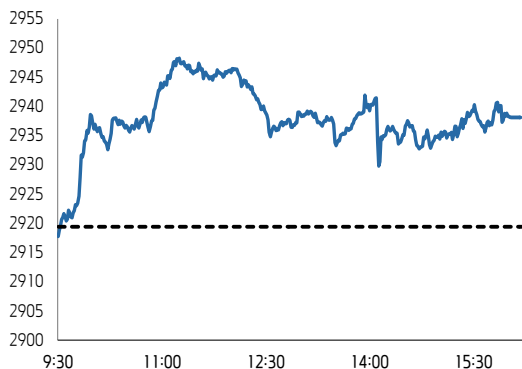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무역협상 관련 보도

미 증시는 전일 장 마감 후 홍수처럼 쏟아진 미-중 무역협상 관련 보도 여파로 혼조 출발.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 협상단과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류허 부총리도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 한때 1% 넘게 강세를 보임. 다만, 스몰딜은 가능하지만 협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분 일부 반납하는 등 변화는 지속(다우 +0.57%, 나스닥 +0.60%, S&P500 +0.64%, 러셀 2000 +0.40%)

전일 미 증시 마감 후 중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조기에 귀국할 것이라는 소식과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시간 외로 1% 넘게 급락. 그러나 백악관에서 관련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언급한 이후 낙폭을 축소 했으며,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제품 판매 또한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낙폭 축소 요인. 특히 중국과의 통화 협정과 15 일 관세 인상 중단 합의 가능성 보도도 긍정적인 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보험권 혼조세로 출발 했는데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추정.

그러나, 미 증시는 장 초반 상승 전환 성공하고 그 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 특히 트럼프가 “중국 부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고, 류허 중국 부총리도 “투자자 보호 등 미국과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용의가 있다” 라고 언급한 점이 상승 요인.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증시는 한때 1% 넘게 상승. 다만, 스몰딜은 합의가 가능하지만,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협상의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분 일부 반납하는 등 무역협상 관련 보도에 따라 등락이 이어짐. 특히 규제 완화 기대와 국제채리 상승에 힘입어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애플 관련주가 상승을 주도한 점이 특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028.15	-0.88	홍콩恒生		25,707.93	+0.10
KOSDAQ		634.73	-0.11	영국		7,186.36	+0.28
DOW		26,496.67	+0.57	독일		12,164.20	+0.58
NASDAQ		7,950.78	+0.60	프랑스		5,569.05	+1.27
S&P 500		2,938.13	+0.64	스페인		9,104.40	+1.25
상하이종합		2,947.71	+0.78	그리스		839.22	+0.90
일본		21,551.98	+0.45	이탈리아		21,756.39	+1.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쿠팡, 스카이웍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델타 에어라인(-1.52%)은 순이익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자 매출 출회되며 하락 했다. 캘리포니아 대규모 산불을 야기시켰던 유틸리티 전력 회사인 PG&E(-29.14%)는 파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법원 판결 이후 급락 했다. 헬스케어 업종인 유나이티드 헬스(+0.74%)는 제프리스가 경쟁 심화 및 대선 정책 불확실성 부각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출발 했으나,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시스코시스템즈(-1.47%)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다. 넷플릭스(+4.84%)는 UBS와 골드만삭스가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으나, 투자 의견을 매수 등급을 유지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애플(+1.35%), 쿠팡(+4.79%), 스카이웍(+5.18%)은 아이폰 수요 증가를 이유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상승했다. 배드배스엔 비온드(+21.58%)는 타겟의 CEO를 새로운 CEO로 임명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코스트코(+0.08%)는 9월 동일점포 매출이 예상(+3.8%) 보다 증가한 4.2%로 발표하자 상승 했다. 다만, 그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JP모건(+1.40%), BOA(+2.01%) 등 금융주는 볼커를 완화와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02%	대형 가치주 ETF(IVE)	+0.89%
에너지섹터 ETF(OIH)	+1.75%	중형 가치주 ETF(IWS)	+0.60%
소매업체 ETF(XRT)	+1.05%	소형 가치주 ETF(IWN)	+0.50%
금융섹터 ETF(XLF)	+1.04%	대형 성장주 ETF(VUG)	+0.58%
기술섹터 ETF(XLK)	+0.69%	중형 성장주 ETF(IWP)	+0.4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6%	소형 성장주 ETF(IWO)	+0.22%
인터넷업체 ETF(FDN)	+0.22%	배당주 ETF(DVY)	+0.76%
리츠업체 ETF(XLRE)	+0.2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0%
주택건설업체 ETF(XHB)	+0.4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7%
바이오섹터 ETF(IBB)	+1.28%	미국 국채 ETF(IEF)	-0.63%
헬스케어 ETF(XLV)	+0.50%	하이일드 ETF(JNK)	+0.22%
곡물 ETF(DBA)	-0.38%	물가연동채 ETF(TIP)	-0.32%
반도체 ETF(SMH)	+0.89%	Long/short ETF(BTAL)	-0.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2.11	+1.28%	+0.23%	-4.98%
소재	352.72	+0.98%	+0.46%	-3.41%
산업재	635.25	+0.86%	+0.67%	-4.16%
경기소비재	935.74	+0.53%	+0.81%	-3.62%
필수소비재	625.09	+0.21%	+0.77%	-0.38%
헬스케어	1,032.22	+0.51%	+0.50%	-2.29%
금융	453.50	+1.02%	+1.45%	-3.05%
IT	1,411.07	+0.64%	+1.47%	-1.38%
커뮤니케이션	166.53	+0.64%	+1.13%	-3.40%
유틸리티	325.54	-0.12%	+0.44%	+2.07%
부동산	243.36	+0.19%	+0.29%	+0.9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에 힘입어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4% MSCI 신흥 지수 ETF 는 1.0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에 943 계약 순매수하자 2.30pt 상승한 272.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0.1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무역협상과 관련된 보도 여파로 하락 했다. 특히 옵션 만기일을 맞아 선물 동향에 따라 변화하는 웨더독 현상이 발생한 점이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트럼프가 류허 부총리와 만남을 가지기로 했고, 류허 또한 미국과 협의 가능성을 언급 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비록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으나, '스몰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특히 미 증시 마감 후 트럼프가 "중국과 매우 매우 협상이 잘되고 있다" 라고 주장한 가운데 협상은 기본적으로 마무리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는 전일 한국 증시 하락 요인을 되돌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 오늘 한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브렉시트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투자심리 개선 기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 이후 협상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2% 가까이 강세를 보이자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국제유가 또한 OPEC 사무총장이 12 월 정례회의에서 추가 감산 기대를 높이는 발언을 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이러한 달러 약세 및 국제유가 상승은 외국인의 수급 개선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과 변화 없음

9 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변화가 없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쳐 예상(mom +0.2%)를 하회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시간당 실질 임금도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2 만건)와 시장 예상(21.9 만건)을 하회한 21 만 건에 그쳐 고용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속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OPEC 사무총장이 12 월 정례회의에서 추가 감산 등 모든 옵션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한편 OPEC 은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수요 증가 전망을 전월 보다 하루 4 만 배럴 감소 했으나 영향력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스몰딜' 기대가 높아지자 약세를 보였다. 이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영국과 아일랜드 정상회담 이후 존슨 총리가 협상이 건설적이었다고 주장한 이후 달러 대비 2%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유로화도 강세를 보였으며, 신흥국 환율 또한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한편 매파 성향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유보한다" 라며 금리동결을 언급 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3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은 12 개월 평균(2.24 배)과 비슷한 2.25 배를 기록해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 불구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2% 상승 했으나, 철근은 0.21%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3.55	+1.83	+2.10	Dollar Index	98.706	-0.42	-0.16
브렌트유	59.10	+1.34	+2.41	EUR/USD	1.1007	+0.33	+0.38
금	1,500.90	-0.79	-0.85	USD/JPY	107.86	+0.35	+0.88
은	17.602	-1.17	-0.42	GBP/USD	1.2440	+1.92	+0.88
알루미늄	1,753.00	+0.52	+2.04	USD/CHF	0.9966	+0.07	-0.25
전기동	5,781.00	+1.71	+2.10	AUD/USD	0.6761	+0.54	+0.28
아연	2,388.00	+4.23	+4.05	USD/CAD	1.3294	-0.29	-0.32
옥수수	380.25	-3.55	-2.19	USD/BRL	4.1157	+0.15	+0.83
밀	493.00	-1.45	+0.87	USD/CNH	7.1093	-0.40	-0.27
대두	923.50	-0.03	+1.29	USD/KRW	1196.20	+0.26	-0.23
커피	93.50	-2.04	-8.38	USD/KRW NDF1M	1190.10	-0.64	-0.91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665	+8.10	+13.05	스페인	0.223	+7.50	+9.50
한국	1.460	+3.80	-3.50	포르투갈	0.197	+6.60	+5.50
일본	-0.203	-0.30	-0.70	그리스	1.435	+2.60	+9.90
독일	-0.469	+7.90	+12.10	이탈리아	0.955	+8.80	+13.00